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2021
07
517

http://afzine.co.kr

Contents

04	특별기고	비애와 비통을 비장한 결의로 극복한 비행 (권홍우 칼럼니스트)
06	기획특집	무더위에도 우리의 임무는 계속!
12	기획특집	시그너스, 101만의 희망을 나르다
18	특별기고	전쟁에는 승리 공식이 있지만, 뜻밖의 결과도 나온다 (이철재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
20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제17화 김용호(金容浩) 시인 편
26	내 옆의 공군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품생활
32	우리 부대는	항공지원작전단
36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부대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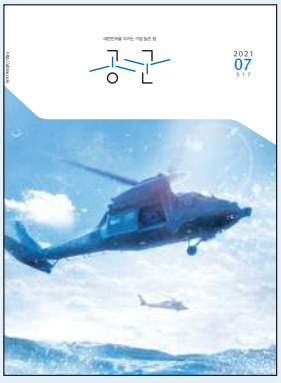


표 지(앞) 해상탐색구조 작전을 펼치는 HH-60
디 자 인 병장 황현동(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
표 지(뒤) 공군인들의 시원한 여름나기(자토 작가)

발 행 일 자 2021년 7월 1일(통권 제517호)
발 행 대한민국 공군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이상규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최지형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21060228)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

40 한 달, 한 권 우리는 여기에 있다

42 명상을 말하다 일상에서 명상하기

44 영화로운 나날 뜨거운 질주와 따뜻한 우정의 공존

46 공군인의 편지 나를 꽃피우고 굽어가는 소나무에게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수송대대 일병 원종현)

47 책 읽는 공군 필승! 체단실 상번 신고합니다
(작전사령부 감찰안전실 상병 김정근)

48 생각하는 그림 관계의 중재선

50 수용의 미학 '수용'의 의미

글 | 권홍우 칼럼니스트(전 서울경제신문 논설실장)

비애(悲哀)와 비통(悲痛)을 비장(悲壯)한 결의로 극복한 비행(飛行)

- 조종사의 날을 기념하여 -

1950년 7월 3일 오전 10시 30분, 공군 대구기지. F-51D 무스탕 전투기 편대가 차례 차례 하늘로 떠올랐다. 한국공군이 보유한 최초의 전투기가 처음 출격한 순간이다. 대구기지를 이륙한 무스탕 편대는 영등포에서 수원으로 남진하는 북한 인민군 제4사단 전차부대에 공격을 퍼부었다. 이튿날인 7월 4일에도 같은 임무를 수행하던 한국 공군의 F-51D 무스탕 전투기 편대에서 최초의 전사자가 나왔다. 편대장 이근석 대령의 기체가 적의 대공포에 맞은 것. 엔진이 피탄된 직후 탈출보다 공격을 택한 이근석 대령은 밀집된 적 전차부대로 돌진, 전투기와 함께 33세 나이로 생을 마쳤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편대장으로서 임무를 잊지 않았다. 불길에 휩싸인 이 대령은 자폭 공격을 감행하면서 부하 조종사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3호기는 왼쪽 탄약 차량을 공격하라. 건투를 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는 최초의 전사자인 이근석 대령의 마지막은 장엄하기 그지 없다. 이 뿐 아니다. 공군 창설과 전투기를 장비하려는 노력, 국민들의 지원과 성원, 실제 전투기 수령과 적응 교육, 출격과 전투에 이르기까지 6·25 전쟁 초기 우리 공군의 대응과 분전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열정과 염원, 희생과 구국정신으로 가득하다. 공군은 지난 2008년부터 '7월 3일'을 '조종사의 날'로 지정해 기억하는데에도 이런 이유가 깔려 있다. 전사 후에 준장으로 추서된 고 이근석 대령은 물론 당시 조종사들의 나라 사랑과 감투 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다. 힘없이 맞이했던 6·25 전쟁 개전초기의 비분강개와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그대로 담겨 있는 '조종사의 날'을 전후한 전황을 살펴보자.

주지하듯이 우리 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기습 남침을 맞았다. 공군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개전 당시 전력은 L-4, L-5 연락기와 T-6 훈련기(건국호) 등 모두 20여 대, 폭탄 276발이 전부. 전투기는 단 한 대도 없었다. 공군 조종사들은 비행기의 창을 열고 육안으로 조준해 맨손으로 폭탄을 던지며 적을 막았다. 개전 초기, 공군은 연락기나 훈련기를 타고 맨손으로 폭탄을 던지는 육탄 전투를 펼치는 동시에 비행 경험이 많은 조종사들을 일본의 미군 기지로 보냈다. 무스탕 전투기를 인도받기 위해서다. 개전 이튿날인 26일 오후 7시 수송기를 탄 조종사 10명은 일본 큐슈 이타츠케에 주둔한 미 공군기지에서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익히는 강행군에 들어갔다. 미 공군 제8전폭비행단 36전폭비행대가 한국인 조종사들을 위해 마련한 훈련 프로그램은 최소한의 도면 및 지상 훈련을 거친 10회의 적응 비행. 이마저 이례적으로 짧았지만 교육 여건은 더 나빴다. 일본 현지의 장마로 전투기가 뜨지 못해 조종사들은 1~2회밖에 무스탕을 몰아볼 기회가 없었다. 전선 상황은 더욱 긴박해지는 가운데 조종사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돌아가 싸우면서 비행술을 익히기로 결정했다.

F-51D 편대 첫 출격

주일 미군기지에서 F-51D 비행교육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조종사 10인

무스탕 전투기를 직접 몰고 7월 2일 오후 8시 대구 비행장에 도착한 조종사들은 이튿날부터 작전에 뛰어들었다. 공군은 전투기 첫 운용에서 성과를 거뒀으나 출혈도 컸다. 한국 공군의 본격적인 전투기 운용 이틀째인 4일 피탄된 무스탕을 몰고 적진에 몸을 던진 이근석 대령은 무스탕 인수팀의 선임장교이자 팀장이었다. 대한민국 전투기 조종사로는 최초의 전사자(이전에도 공군 조종사의 전사 기록이 있지만 전투기 조종사로는 이 대령이 처음이다)인 그는 빼어난 조종사로 이름 높았다. 38선 이북에서 최고 명문이라는 평양고보를 졸업하고 17세부터 일본 비행학교에서 비행술을 익힐 때, 담당교관이 '조종술의 천재'로 추켜세웠다고 한다. 베테랑 조종사인 이 대령이 첫 출격에서 피격된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위험을 무릅쓰고 목표에 근접했다. 둘째, 그가 주로 탔던 일본산 제로기와 미국제 무스탕의 비행 특성이 달랐다. 제로기는 극단적 경량화를 추구한 반면 무스탕은 무거우면서도 빠른 전투기여서 기종 전환 훈련에 시간이 필요했지만 다급한 출격으로 기체 특성을 익힐 여유마저 없었다.

비단 이근석 대령뿐 아니다. 한국 공군의 경험 있는 전투기 조종사 전부가 그랬다. 짧은 적응 훈련만 받고도 한국 공군은 몸을 사리지 않았다. 미 공군을 포함한 유엔 참전국의 여러 나라 공군이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한 평양 인근 승호리 철교도 한국 공군은 단 두 번의 시도로 폭파시켰다. 뒤늦게 출발한 데다 제트전투기를 타던 미국과 영국 공군과 달리 프로펠러 전투기만 운용하면서도 한국 공군은 얼마 안 지나 미 공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출격횟수를 기록하게 됐다. 무스탕 전투기 10대로 시작했던 공군의 규모도 그만큼 커졌다. 한국 공군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무스탕 전투기는 133대에 이른다. 공군이 1950년대 말 미국에서 제트전투기를 들여오며 프로펠러 전투기는 차츰 도태됐으나 그 정신만큼은 아직도 이어져 내려온다.

'조종사의 날'을 지정해 선대의 뜻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애(悲哀)와 비통(悲痛)을 비장(悲壯)한 결의로 극복한 비행(飛行)'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제트전투기가 개발돼 이미 전장을 날던 시대에 프로펠러 전투기를 겨우 들여와 싸웠던 우리 공군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산 전투기가 최초 시험 비행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의무가 있다. 불과 1주일도 안되는 전환기종 훈련만 받고 전쟁터로 뛰어갔던 선배들의 뜻은 세계 공군 역사의 귀감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후대에게 전달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대를 넘어 고귀한 정신을 이어나가는 나라는 쉽게 쇠락하지 않는다. '조종사의 날'을 맞아 선배들을 떠올리며 미래를 그려본다. 우리는 어떤 내일을 맞이할까. AF

글 | 월간공군 편집실 사진 | 편보현 원사(11전비), 유영임 상사(38전대)
취재지원 | 11전비 공보정훈실, 38전대 공보정훈실

무더위에도 우리의 임무는 계속!

여름이다. 밖에 조금만 서 있어도 땀방울이 주르륵 흐르고 짜증이 나는 날이다.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푹 쉬고 싶지만, 공군 장병들에겐 주어진 임무가 있다. 이번 호에는 공군 장병들이 혹서기에 임무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보았다. 무더위에도 굴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소개한다.

❶, ❷ KF-16에 무장 장착 작업을 하고 있는 무장지원반 장병들
❸ 특수장비를 이용해 무장을 나르고 있는 무장지원반 장병
❹ 항공기 급유 작업을 하고 있는 장병들

6월 초,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이하 '38전대')를 찾았다. 부대 관계자는 바닷가에 위치한 부대라 일평균 기온은 낮은 편에 속하나, 높은 습도로 일과 중에는 체감온도가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최고기온은 32도에, 체감온도는 34도였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엄체호. 무장정비사들이 작전 지원에 필요한 무장 장착 작업 중이었다. 무장정비사들은 항상 야외에서 근무하다 보니, 여름철 무더위를 누구보다 경계한다.

아무래도 실제 무장을 취급하는 곳이다 보니, 엄격한 군기와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별다른 대화 없이 4명의 팀원들은 절차에 맞춰 무장장착을 착착 진행했다. 오전 10시에 따가운 햇볕을 막아주는 천장과 벽이 있는 엄체호였지만, 습기를 가득 머금은 활주로의 열기까지는 막아주지 못했다.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무장정비사들은 땀에 젖어들었다.

무장지원반 선임 임희연 중사는 "지금은 시원한 편이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항공기나, 야외에서 무장장착을 하는 경우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더위와 함께 해야 한다."며, "더워지기 전에 빨리 끝내고, 다음 항공기로 이동해야 한다. 빠르지만, 완벽하게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임 중사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고했다. 좀 쉬었다가 2파 준비하자" 무장지원반은 하루에 보통 2~3대 정도의 항공기 무장을 담당한다. 장시간 고온에 노출될 경우 안전사고 위험도 있기에, 쉬는 시간만큼은 푹 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고 한다.

주기장 한 켠에서는 항공기 급유 작업이 한창이었다. KF-16 앞에 정차한 급유 탱크에서 장병들이 내리고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굵은 호스를 들고 신속하게 이동해 항공기에 장착했다. 정해진 양을 주유한 뒤 체크하고 곧장 옆 항공기로 다시 이동했다.

F.O 작업을 하고 있는 장병들

비행임무 1시간 전이 되자, 38전대 모든 정비사들이 나와 유도로와 주기장 일대의 F.O(이물질)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F.O는 통상 금속, 돌, 천 조각, 동물 등 외부로부터 유입된 이물질을 뜻한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항공기 엔진으로 F.O가 들어갈 경우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그렇기에 작은 이물질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쳐선 안된다. 정비사들은 가장 더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600m 가까이 되는 거리를 촘촘히 서서 살펴보며 지나왔다. F.O 제거 작업이 끝나자 정비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임무를 수행한다.

뒤이어 KF-16이 편대를 이루어 유도로를 활주했다. 활주로 끝단에 도착한 조종사들은 손아귀로 대대 구호인 호랑이 발톱을 보인 뒤, 우렁찬 포효와 함께 곧장 날아올랐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엔진열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는 KF-16을 보고 있으니, 잠시 더위도 잊을 수 있었다.

얼마 뒤 임무가 끝난 조종사를 만났다. 이준영 대위는 “다행히 전투기에는 공조장치가 있어,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다만, 이륙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좁은 공간에 몸에 꽉 맞는 항공장구를 입고 10분만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른답니다.”라고 땀을 닦으며 말했다. 이어 그는 항공기를 살펴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 장구를 챙겨 비행대대로 복귀했다.

❶ 대대 구호를 외치고 있는 조종사들
❷ 임무 종료 후 KF-16 외기 점검을 하고 있는 조종사
❸ 지상활주 중인 KF-16

❶ 점심식사를 조리하고 있는 급양병들
❷ 격리 장병들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고 있는 급양병들
❸ 닭튀김을 만들고 있는 급양병들

38전대에 이어 찾은 곳은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전비'). 11전비는 국내에서 가장 더운 도시에 있다. 부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숨막힐 듯한 뜨거운 열기를 느꼈다. 자연스레 인상을 쓰게 됐다.

이날 11전비는 최고기온 34도, 체감온도 37도에 달했다. 10시부터 17시까지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아직 진짜 더위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11전비에 근무하는 부대원들의 표정에서 왠지 모를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먼저 찾은 곳은 급양중대 병사 1식당. 1년 365일, 삼시세끼 쉬지 않고 장병들의 건강한 식단을 책임지는 곳이다. 급양병 7명이 매 끼니마다 1,000인분을 만든다고 한다. 이곳의 급양병들은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밥은 나와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장병들을 위한 도시락까지 준비하고 있어 업무가 조금 늘었다. 그럼에도, 맛있는 식사 한 끼를 위해 분주히 일을 한다. 조리실에는 비교적 냉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많은 양의 밥을 조리하다 보니 아무래도 더울 수밖에 없다. 점심식사 조리가 끝나갈 무렵, 급양병들에게 가장 힘든 업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모두 손가락으로 같은 장소를 가리켰다. 튀김실. 큰 솥에 팔팔 끓는 기름통 2개를 휘저으며 음식을 튀겨야 하니, 여름철 이곳만큼은 피하고 싶다고 이야기 한다. 이동형 냉방기를 가동하지만, 소용없다.

튀김실에서 한창 닭튀김을 하고 있던 급양병은 "아이스조끼와 쿨토시를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갔지만, 10분도 채 되지 않아 땀이 흐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찾은 곳은 부대 정문. 출입을 통제하는 군사경찰대대 병사 4명이 근무하고 있다. 5개 조로 나뉘어 24시간을 6번 교대하며 근무하고 있다. 11전비는 부대 규모가 크다. 기지 안에는 다른 공군 부대도 있고, 미군 부대도 있어 하루에 출입하는 차 대수만 해도 1,500대를 훌쩍 넘긴다. 13시부터 일하고 있는 이번 근무조는 17시 30분까지 정문을 지킨다. 오후 시간에는 공사 차량과 업무 차량 출입이 잦아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한다. 내리쬐는 태양빛, 아스팔트 도로 위 차들이 내뿜는 열기까지 체감온도는 40도를 훌쩍 넘겼다. 작은 천막 아래서 태양을 피하며 간이 선풍기로 바람을 쐬는 방법 말고는 더위를 피할 수 없다.

❶ 부대 정문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군사경찰대대 장병
❷ 기지 순찰 중인 기동소대 장병들
❸ 훈련 중인 기동소대 장병들

근무 장병은 “아무래도 겨울보다 여름이 힘들다. 옷을 껴입어서 버티면 되는 겨울과는 달리 여름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너무 더운날에는 얼음을 준비해와 몸에 넣기도 하면서 더위를 버텨본다.”고 말했다.

정문 근처의 기동소대에서는 소형전술차량 순찰과 훈련이 이어졌다. 강렬한 태양빛 아래서 10kg 가량의 전투장구를 착용하고 전술차량에 탑승한 기동소대 요원들은 기지 1바퀴를 돌며 순찰을 한다. 차량이 온통 철판으로 뒤덮여 있어, 차안은 찜통이다. 에어컨이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 순찰을 돌고, 훈련을 하고나면 땀으로 샤워를 할 지경이다.

기동소대장 이윤겸 중위는 “보통 순찰은 하루에 10차례 실시합니다. 작년 여름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순찰과 훈련만으로 3~4kg이 빠졌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특수임무반. 특수임무반 앞 공터에서 특수임무요원들이 대테러 사격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수임무반의 하루 일과는 체력단련과 훈련으로 가득 차 있다. 대형을 갖추고 개인화기를 이용해 제한 시간 내에 목표물을 제압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한창이었다.

뒤이어 팀원들과 함께 사격자세를 취하며 전진하는 훈련을 이어갔다. 공군 특수임무반은 위장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모든 복장이 검정색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태양빛의 집중사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훈련을 끝낸 뒤 특수임무반 성기현 하사는 "특임반의 하루 일과는 훈련과 체력단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강한 오늘의 특임반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AF

대테러 사격훈련을 하고 있는 특수임무요원들

"이번 호에 소개된 부대뿐만 아니라,
공군 각급 부대 장병들은 오늘도 맡은 바
임무완수를 위해 땀 흘리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땀방울,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기 위해 흘리는
헌신의 땀방울에 자그마한 격려를 보내 본다."

글 | 대위 이요셉(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 사진 | 원사 정연길(15비), 상사 양순호(5비)
취재지원 | 중위 정지웅(5비 공보정훈실)

시그너스, 101만의 희망을 나르다

코로나19 백신 해외 항공 수송 임무요원 인터뷰

6월 2일, 백신을 수송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공군 공중급유수송기 KC-330

대한민국공군은 대한민국 영공에서만 비행하지 않는다. 공군력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 어디로든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있다. 태풍 '위투'로 사이판에 우리 국민이 고립됐을 때, 지진·쓰나미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6·25전쟁 국군 유해를 해외에서 봉환해올 때,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이라크 현지 교민을 안전하게 구출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공군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우리 국민을 지키고, 세계에 우리의 위상을 알렸다.

그리고 지난 6월 2일, 공군은 또 하나의 막중한 임무를 위해 미국으로 날아올랐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코로나19 얀센 백신 101만 회분을 수송하기 위해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MRTT가 투입된 것이다. 현지에서 백신을 인수한 임무요원들은 5일 새벽 무사히 귀환했다. 이는 군용기가 해외 백신 반입에 투입된 첫 사례였다. 안전하게 이송된 백신은 예비역과 민방위, 군 가족 등에게 접종됐다.

장거리 비행 중에도 최적의 온도 유지가 필요한 임무. 앞선 사례가 없는 첫 번째 임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임무요원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5공중기동비행단의 임무조종사 이태규 소령, 유압정비사 허태정 원사(진), 정비진행관 황영진 상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임무요원들의 격리기간 중 서면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백신 수송 임무에서 KC-330 조종을 담당한 이태규 소령

KC-330의 유압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허태정 원사(진)

백신의 안전한 포장과 적재를 책임진 황영진 상사

AF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태규 소령 : 제261공중급유비행대대 이태규 소령입니다. 2017년 KC-330 도입조종사로 선발되었고 2020년에는 교관으로 승급하여 후배들의 기종 전환과 승급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C-330 최초 UAE 파병 아크부대 진 교대 임무, 이라크 파견근로자 긴급 이송 임무 등 다양한 해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총 비행시간은 2,700시간이고 KC-330 비행시간은 약 800시간입니다.

허태정 원사(진) : 부품정비대대 허태정 원사(진)입니다. KC-330 도입부터 현재까지 안전한 비행을 책임지는 유압계통 정비를 맡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외임무에 함께 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임무는 147구의 국군전사자 유해를 봉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영진 상사 : 제261정비중대 황영진 상사입니다. 항공기 정비, 화물 포장 및 적·하역, 비행 중 비상상황 대비 등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군 유해봉환, 한빛부대·아크부대 진 교대 임무에서 동승근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비행단장에게 신고를 하고 있는 임무요원들

AF 이번 백신 수송 임무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이 : 미국 서부 트레비스 공군기지에서 코로나19 얀센 백신 약 100만 회 분량을 적재하여 서울기지로 이송하는 임무였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차원이었으며 청와대와 국방부, 식약처, 질병청 등이 관련하였고 미국에서도 백악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미 서부까지는 대략 9,5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미국으로 갈 때는 편서풍을 타고 가서 10시간 30분 정도가 걸렸고, 올 때는 반대로 편서풍을 뚫고 와야 하기에 12시간 5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허 : 백신 수송은 신속하고 정확한 임무수행이 필요하기에, 미국에서부터 중간 기착 없이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KC-330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백신은 공장에서부터 냉장 온도를 유지하는 특수포장 박스에 담겨 우리에게 인계되었고, 미 공군 장병들의 도움으로 백신을 항공기에 신속하게 적재할 수 있었습니다.

황 : 코로나19 백신 공수는 이전에 해보지 못한 특수화물 공수 임무였습니다. 항공기 정비, 화물 적·하역, 임무 관련 장비 협조 등을 위해 미군 관계자와 수차례 화상회의를 진행하였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임무였기에 전 임무 요원이 일심단결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임무 출발 전 각오를 다지는 임무요원들

AF 임무에 투입되는 심경은 어땠습니까?

이 : 동명부대 진 교대 임무 완수 후 곧바로 백신 수송 임무 투입이 결정되면서 피로감과 함께 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외 임무는 계획단계부터 확인하고 협조할 사항이 적지 않고, 확인을 거듭해도 현장에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지거나 미흡한 점이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비행경로, 목적지, 화물 모두 생소한 상황 속에 임무를 준비하는 것이 부담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무의 중요성을 함께 체감했기에 부담감보다 더 큰 책임감으로 이번 임무를 준비했습니다.

허 : KC-330은 언제든지 파병, 화물공수 및 재외국민 보호 등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많은 국민의 염원과 바람이 집중된 임무인 만큼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임무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꼼꼼하게 항공기를 점검하고 상황별 대처와 절차를 숙지하는 등 철저히 대비한 덕분에 아무런 문제 없이 백신 수송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황 : 처음 임무가 결정되고 걱정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임 정비사로 투입되어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전 임무들에서 선배님들께 배우고 경험한 일들을 상기하며 부족한 부분은 선배님들께 물어보고, 어느 점을 더 신경 써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하며 임무를 준비했습니다.

AF 임무 수행 중 어려웠던 점은?

이 : 해외 임무의 최우선순위는 비행 안전이고, 임무 요원의 충분한 휴식은 비행 안전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임무 요원들은 출발하기 직전까지도 미흡한 점이 없는지 반복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현지에서도 항공기 점검과 거듭되는 회의를 수행해야 해서 마음 편히 휴식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KC-330은 더 많은 임무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임무 요원들이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이 동반되면 좋겠습니다.

5일 새벽 서울공항에 도착한 KC-330 MRTT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허 : KC-330은 올해도 벌써 여러 번의 해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비행, 시차, 귀국 후에 이어지는 장기간의 격리는 언제나 적응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임무조종사, 적재사, 정비사 모두가 서로를 다독여가며 임무를 완수하고 있습니다.

황 :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백신 포장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어느 타이밍에 포장을 시작할지 결정하는 것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백신은 일반 화물과 달리 저온 보관이 필요하기에 상온에서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해진 이륙시간에 맞춰 포장을 마쳐야 합니다. 백신 포장 및 적재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AF 임무를 마친 소감은?

이 : 이번 백신 수송 임무뿐만 아니라, 이전에 수행했던 다른 임무들에서도 제가 한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히 수행한 덕분에 임무는 차질없이 완수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 역할은 미약하였으나,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제가 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임무를 함께 한 모든 요원들은 저와 비슷한 보람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허 : 백신 수송 임무 투입이 결정되고 짧은 기간 동안 임무를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며 즐거웠습니다.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 극복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임무를 수행한 조종사, 적재사, 정비사 및 미 공군 관계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황 : 처음 느낀 부담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 저에게 주어진 만큼 항공기가 서울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긴장의 끈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공항 도착 후 백신을 하역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했다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임무를 위해 함께 수고한 인원 그리고 물심양면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항공기에서 하역 중인 코로나19 얀센 백신

AF 월간 「공군」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 :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았고, 해를 넘겨서도 전 세계가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서히 지쳐갔지만, 또 서서히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한미정상이 만나 이뤄낸 성과인 이 백신이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둡고 긴 터널 끝에 보이는 빛을 따라가다 보면 망가진 우리의 일상이 마스크 벗은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허 : 공군력은 국가의 국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전력입니다. 국력이 상승하는 만큼 다양한 임무를 가진 항공기가 공군에서 활약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모든 공군인의 사기는 최고가 될 것입니다. KC-330은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으면 어디라도 갈 것입니다. KC-330의 다양한 활약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 : 최초라는 타이틀은 언제나 커다란 부담감으로 다가오지만 공군으로서, KC-330 정비사로서 이번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번 임무를 계기로 어떤 임무가 주어져도 동료들과 철저한 준비로 일심단결하여 완벽히 임무를 완수하고, 국가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F

공군을 즐기는 스마트한 방법!
공군 SNS 주요콘텐츠 안내

에어본

오직 공군에서만 볼 수 있는 항공촬영 콘텐츠

공대리

공군 대위 LEE가 쉽게 풀어주는 공군 이야기

공피셜

공군이 알려주는 공군 이야기

100인의 공군

공군의 다양한 보직을 소개하는 미니다큐멘터리

높은힘레코드

공군 스타일의 음악을 들려드리는 콘텐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티스토리 블로그
대한민국공군	대한민국공군	대한민국공군	공군 공감
youtube.com/rokafplay	facebook.com/rokairforce	instagram.com/rokaf_offical	afplay.kr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글 | 이철재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

전쟁에는 승리 공식이 있지만, 뜻밖의 결과도 나온다.

글쓴이 이철재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을 맡으며
국방부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전쟁엔 법칙이 있을까.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터엔 늘 우연이 개입하기 때문에 법칙을 찾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류가 수만 년 싸워오면서 나름 터득한 지혜는 있다. 더 나은 무기를 가진 쪽이 전투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19세기 산업화, 20세기 정보화를 거치면서 무기와 장비의 우세는 전승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여기에 21세기 시작부터 거세게 일고 있는 인공지능(AI)화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공중전도 마찬가지다. 하늘에서 더 먼 곳에서 적을 발견하고, 더 정확한 적의 정보를 얻은 뒤, 더 확실히 적을 때리는 편은 반드시 이긴다고들 믿게 됐다. 개싸움(dogfight)이라고 불리는 근접전은 파일럿의 실력에 기대는데, 요즘은 박물관의 유물처럼 돼 버렸다. 더 좋은 전투기, 더 좋은 레이더, 더 좋은 미사일이 승리의 공식인 세상이다.

그러나 전사(戰史)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공중전은 무기의 싸움이자 지략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적의 허를 찔러 승패를 뒤집은 공중전이 제법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볼로 작전이다.

1964년 8월 2일 베트남 통킹만에서 미국 해군의 구축함인 매딕스 함이 북베트남 해군의 어뢰정 편대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는 보고가 올라온 뒤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 북베트남의 주요 도시와 시설을 폭격했다. 1965년 3월 2일 시작해 1968년 11월 1일 끝난 롤링선더(Rolling Thunder) 작전 도중 6·25전쟁 기간에 투하한 폭탄(65만 3,000t)보다 더 많은 양(86만 4,000t)이 북베트남에 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거둔 전략적 이익은 크지 않았다. 북베트남의 방공망이 예상보다 견고해 미국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롤링선더 초반 전폭기인 F-105의 피해가 컸다. 북베트남 공군 Mig-21이 F-105를 집요하게 노렸기 때문이다. 폭탄을 가득 실은 F-105는 Mig-21의 먹잇감에 불과했다. F-105가 반격하려면 폭탄을 버려야만 했다. 북베트남 입장에선 F-105의 폭격을 무산하는 것만으로도 남는 장사였다.

1966년 제8전투비행단 단장에 취임한 로빈 올즈 대령은 전술참모인 존 스톤 대위와 함께 북베트남의 전술을 역이용하는 작전을 짰다. 작전명은 볼로. 볼로는 필리핀 원주민이 사용하는 정글도다. F-4를 F-105처럼 보이도록 한 뒤 갑자기 북베트남 Mig-21을 덮치는 게 작전의 골자였

미 제8전투비행단 소속 F-4C 팬텀 전투기

다. 1967년 1월 2일 F-4가 태국 우봉 기지에서 이륙한 뒤 F-105가 진입하는 코스로 이동했다. 고도나 전개 대형도 F-105를 따라했다. 당시 북베트남의 레이더 요원은 비행 고도나 편대 전개를 분석해 미군기 기종을 판단했다. F-4는 F-105의 전자전 재밍포드까지 그대로 달았다.

북베트남은 미국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다. 12분간 벌어진 공중전에서 북베트남은 MiG-21 7대를 잃었다. 당시 북베트남 공군이 실전에 투입한 MiG-21의 절반인 수치였다. 미 공군의 피해는 0대였다. 나흘 후 제8비행단은 RF-4 정찰편대처럼 속여 북베트남 MiG-21 2대를 더 떨어뜨렸다.

이라크 공군은 미 공군보다 훨씬 더 교묘한 작전을 펼쳤다. 이란 · 이라크 전쟁(1980~88년) 당시 이란 공군의 F-14는 당시 중동의 최강이었다. 이란은 이슬람 혁명(1979년) 이전 미국으로부터 최신 F-14 79대를 들여왔다. 이라크 공군의 전투기 가운데 이란의 F-14를 1대1로 맞설 만한 게 없었다. 이란도 고민이 있었다. 미국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F-14의 부품과 미사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란은 F-14에 주로 전투초계(CAP) 임무를 맡겼다. 이라크 공군 지휘부는 속임수로 이란 F-14를 낚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갓 수입한 미라지 F1을 투입하는 작전을 짰다. 소련제 구형 Mig-23은 미끼였다. 이란 F-14가 Mig-23에 덤벼들면 미라지 F1이 기습하는 작전이었다.

1981년 11월 15일 이라크 Mig-23 편대가 이란 공역에 진입했다. 이와 별도로, 이라크 미라지 F1 편대는 Mig-23 편대와 다른 방향에서 저공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두 편대는 20㎞ 거리를 유지했다. 이라크 방공지휘소는 이란 F-14 편대가 Mig-23 편대에게 접근하는 걸 발견한 뒤 미라지 F1 편대에게 이를 알렸다. 그러자, 미라지 F1 편대는 고도를 높이고 레이더 출력을 높여 이란 F-14 편대에 빠르게 접근했다. 그리곤, 10㎞ 거리에서 공대공 미사일 2발씩을 발사했다. 이란 F-14 편대에게 반격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게 이 작전의 관건이었다. 결국 F-14 1대가 피격됐다. 이라크 공군의 첫 F-14 격추기록이었다. 같은 달 24일에도 이라크는 비슷한 작전을 진행해 이란은 F-14 2대를 더 잃었다. 손발이 잘 맞아야 하는 작전인데, 이라크 공군이 제대로 해냈다. 걸프 전쟁때 미 공군은 이라크 공군에 대한 경계심을 끝까지 놓지 않은 이유다.

요즘 북한 공군은 한국 공군에 견줄 수준이 아니다. 항공기가 낡은데다 정비도 불량하고 연료도 부족하다. 유사시 한 · 미 연합 공군은 한순간에 북한 공군을 괴멸할 것이다. 그렇다고, 방심은 금물이다. 북한 공군은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전세를 뒤엎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노력이 결국 허사로 끝난다는 보장은 없다. 앞선 두 사례의 교훈이다. AF

구성·편집 | **월간공군 편집실** 글 | **이윤식 작가**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제17화 김용호(金容浩) 시인 편

『코메트』 제30호, 1957년

슬픈 해체

저어 까마아득한 하늘사이로 바람이 입니다. 구름이 잉태되고 그리곤 눈물이 마련됩니다. 기도는 끝내 닿지 못해 허공에서 해소하고 그것인가요 거리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곤, 떨어지곤 합니다.

불김이 간 아랫목에단
애놈들을 재워놓고
윗목에서 몸둥이를 오구리고 앉았노라면

누구에게도 아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아닌
그저 막연하게 소용도리하는 생각들
그 막연함이 절실하게
나에게로 피어 오를 때, 앗질하는 나는
누가 기다리는 듯 밤을 헤치고
앞골목으로 나갑니다.

발밑이 찬걸 느끼며 스얼슬 걸어 가노라면
물론 막다른 골목이 아닌데도
막다른 심정이 길을 막아 버립니다.

주춤하고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면 별이 다정스레 집집의 어린이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모양입니다. 헌데 어찌된 일일까요 난 통째 그걸 알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윽고 저 산머리에서 별 하나가 꼬리를 달고 어디론지 사라집니다. 아하! 슬픈 해체! 나도 저별처럼 동화의 세계에서 추방되어 해체된 지 오래입니다.

-1957 · 늦가을-

김용호 시인은 『코메트』에 「고개」(1954년, 제9호), 「간헐하는 8월」(1957년, 제28호), 「슬픈 해체」(1957년, 제30호), 「포물선 -어느 비행사에게-」(1958년, 제35호) 등 4편의 시와 게리쿠퍼 주연의 영화 모로코(Morocco; 1930)를 평한 「망각과 체념의 세계」(1960년 제44호) 글 1편을 남겼다.

『코메트』 제35호, 1958년

포물선

- 어느 비행사에게 -

다음에, 다음에, 다음 다음에
연결하는
선.

선의 무용.

공간위으로, 공간아래로
약동(躍動)하는
점.

점의 청춘.

속력속에, 속력을 망각한 안정된 위치에서 날개는 수평을 저울하고, 다시 부동의 자세가 분수인양 솟구쳐 포물선이 그려진다. 그건 무지개 같은 것. 황홀히 피어 오른 무지개 같은 것.

차례로, 차례로, 차례, 차례로
자랑하는
율동.

시의 역학.

압축되는 지구의 상층으로
뻗어가는
거목.

꿈의 미학.

그 속엔 동화가 아기자기하게 꽃펴 있다. 무한에서 무한으로 통하는 길이 있어 날개는 한결 가볍고, 무한의 한 지점에서 한폭의 회화(繪畵)로 형상되는 그 동화, 그건 네가 창조하는 포물선이다.

김용호 시인(마산문학관 제공)

시문학입문, 1949(대구문학관 제공)

김용호 시인 시비(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사범관 앞)

김용호(金容浩, 1912-1973) 선생은 마산 출신의 시인이다. 경남 마산은 2010년 7월 1일 마산, 창원, 진해가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마산회원구(馬山會原區)와 마산합포구가 되었다. 마산시는 구한말 일제의 침략에 의하여 일본군의 한반도와 대륙 침략의 병탄기지와 후방보급항, 일제 자본가들의 산업 휴양지로 개발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당연히 국내 다른 지역보다도 왜색문화가 일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그럼에도 마산은 수많은 시인, 작가, 평론가 등 문인과 예술가들을 배출하였으며, 6·25전쟁 전후로 예술가들이 마산에 정착하여 활동하면서 마산시는 '문향의 도시'로 손색이 없게 되었다. 마산문학관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문향 창원을 빛낸 문학인의 얼굴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창원 마산 지역 출신의 문인 중 권도현, 권환, 김용호, 김춘수, 이극로, 이은상, 정진업, 천상병, 황선하 등 타계한 시인, 평론가 26명을 선정하여 임채수 시인이 스케치한 인물초상화 등을 선보였다.

마산상업학교를 나온 김용호 시인은 1930년대 「춘원」, 「첫여름밤 귀를 기울이다」 등 시를 발표하면서 시작활동을 하여 『향연』(1941), 『해마다 피는 꽃』(1948) 등 6편의 시집과 400여 편에 달하는 시를 남겼으며 『시문학입문』(1949) 등 다수의 문학이론 책을 펴냈다. 시인은 해방후 좌익계열 문학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전향하여 『자유문학』의 주간으로 활동하였으며 후에 단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

시인은 이상세계의 상실 전과 후를 대비시키는 방식의 시를 즐겨 썼다. 가령 「슬픈 해체」의 경우, "별이 다정스레 집집의 어린이에게 동화(童話)를 들려주는 모양"으로부터 "나도 저별처럼 동화의 세계에서 추방되어" 해체된 자아의 현재 모습을 드러낸다.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이러한 마음속 대립은 일제의 탄압에 의해 망가진 조국에 대한 울분, 해방후에는 소시민으로서의 삶의 모습 등 다양한 시적 갈등과 내용을 담아낸 서정시와 서사시를 발표했다. 그가 태어난 곳(현 마산합포구 중성동)은 뒤로 시냇물이 흐르고 그 너머에 노비산이, 앞에는 바다가,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로 가득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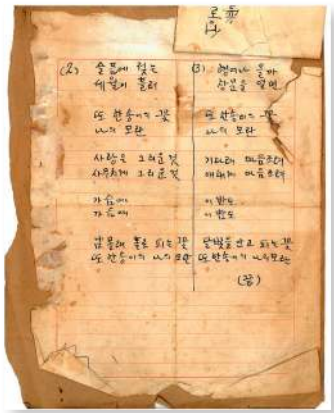
고향 뒷산
노비산 언덕 위의 소년은
꿈이 많았더란다
(중략)
고스란히 별과 함께
그냥 샌 밤이 있었더란다 나의 푸른 별을 안고

「푸른 별」 중에서

시집『해마다 피는 꽃』

그의 이러한 시적 태도는 국민이 탄압받는 정치현실을 질타하는 시작(詩作)으로도 작동했다. 어린나이에 목도했던 1919년 3·1운동, 1960년 3·15부정선거로 폭발한 민주화의 한복판에서 준열한 시들을 썼다. 3·1운동과 관련한 시,「해마다 피는 꽃」에서 그는 "지고 이기는 비결을/우리들은 뼛속마다 새겼었다. (중략) 보람 있는 맞대질이었다/뿔 돋친 반항이었다/받아넘긴 싸움이었다/일천 구백 십 구년 삼월 초하루(중략) 또다시 보라!/우리들의 이글이글 타는 불길에/벌-벌 두려움에 떠는 놈들의 얼굴을"라고 울분과 결코 꺾이지 않는 민족의 기백을 표현했다.

김주열과 총상을 입고 숨진 십여 명의 희생을 낳은 3·15부정선거로 촉발된 마산의 민주화운동 한복판에서 시인은「물결이 노효한 남쪽의 3월 15일」의 시를 썼다. 그는 "내고향 마산바다/돌섬이 고래고함을 치고/거리거리에, 골목골목에/아우성은 피가 되어 쏟아졌다.//장군천앞에서, 몽고정 갈림길에서/활활 타오른 억센 젊음이여"라고 토로했다. 그 외에도 그는 조국과 조국의 땅을 사랑한 다수의 시들이 있는데「조국이여」,「시로 그린 지도 위에」,「해마다 사월이 오면」 등이 그것이다.


「또 한 송이의 나의 모란」 2절과 3절, 미발표본

시인이 공군기관지에 여러 차례 시를 발표한 경위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시인이 1953년 해군본부 정훈감실에서 발행한『한국해양시집』에 시를 발표한 것으로 보아 그 인연으로 공군본부 정훈감실과도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인연으로『코메트』지에 시들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보이는「포물선」은 대위법적 그의 시쓰기 전형에서 벗어난 시로 눈에 띈다.「또 한 송이의 나의 모란」은 김용호 시인의 시에,「선구자」를 작곡한 조두남 작곡가가 곡을 붙여 가곡으로도 탄생하였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조금은 낯선 김용호 시인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시인이라고 본다. 특히 그가 마산 출신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산이라는 지역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그리고 문학사에서 빛과 그림자를 함께 지닌 영욕의 축소판이고 그 역사적 현장 한가운데에서 치열한 시를 썼기 때문이기도 하다. 친일논란에 쌓인 마산 지역의 문인, 음악가, 화가 등이 더러 있음에도 마산은 한국 문화사를 빛낸 문학인, 예술가들을 다수 배출한 곳이다. '결핵문학'과 '공단문학'이 탄생한 곳도, 우리나라 최초로 '시의 거리'가 조성된 곳도 마산이다.

산호공원에 있는 시의 거리

임채수 시인이 연필로 스케치한
김용호 시인 초상화(마산문학관 제공)

지난 5월 26일 마산 취재일정에서 마산문학관 학예연구사로 재직 중인 조재영 시인은 마산과 지역문화에 문외한인 필자와 곳곳을 함께 다니며 안내와 해설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산호공원에 조성된 시인의 거리에는, 김용호 시인의 시비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일래의 「산토끼」, 최순애의 「오빠생각」, 이원수의 「고향의 봄」 등 마산 지역 문인과 예술인들의 작품들을 기념한 시비 등 흔적들이 놓여 있다. 친일행적의 논란과 일제강점기 당시 임화, 지하련, 권환 등 사회주의계열 문인들의 삶의 흔적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현장이었던 마산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영욕의 세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산문학관

'시의 거리'라고 하지만 산호공원에 오르는 길은 조재영 시인이 지적한 것처럼 나무들이 지나치게 우거져 햇빛이 잘 스며들지 않아 한낮인데도 무척 어두웠다. 언뜻 묘비처럼 보이는 흑색의 시비(詩碑)들로 인해 그 음습함을 더해주었다. 그 아래 터에는 임화와 지하련이 한 때 살았던 폐가가 있었다. 상점과 화가, 문인들의 작업장이 어우러진, 문화거리로 조성해놓은 창동의 거리를 거닐면서 산호공원의 문학길도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제강점기, 해방과 6·25전쟁, 민주화운동 등 현장에서 시를 썼던 마산 출신의 김용호 시인을 기억하고자 함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를 있는 그대로 초석으로 삼고 '망각과 체념' 그리고 철지난 이념에 발목을 잡혀 소모적인 갈등과 혼란을 넘어서서 길을 모색하고 문화적 성취를 위해 또 한 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시인이 시에서 호소한 것처럼 "막다른 골목이 아닌데도", 절망과 불안과 증오심에 가득 찬 "막다른 심정"으로 가야 할 길을 우리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막다른 심정을 터주고 열어줄 '시의 거리'들이 재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AF

대한민국 공군
부사관후보생
제242기 모집

지원서 접수기간

2021. 8. 9.~ 8. 20.

모집문의

- 공군모집
- @ROKAFrecruiting
- @rokaf_recruiting
- 143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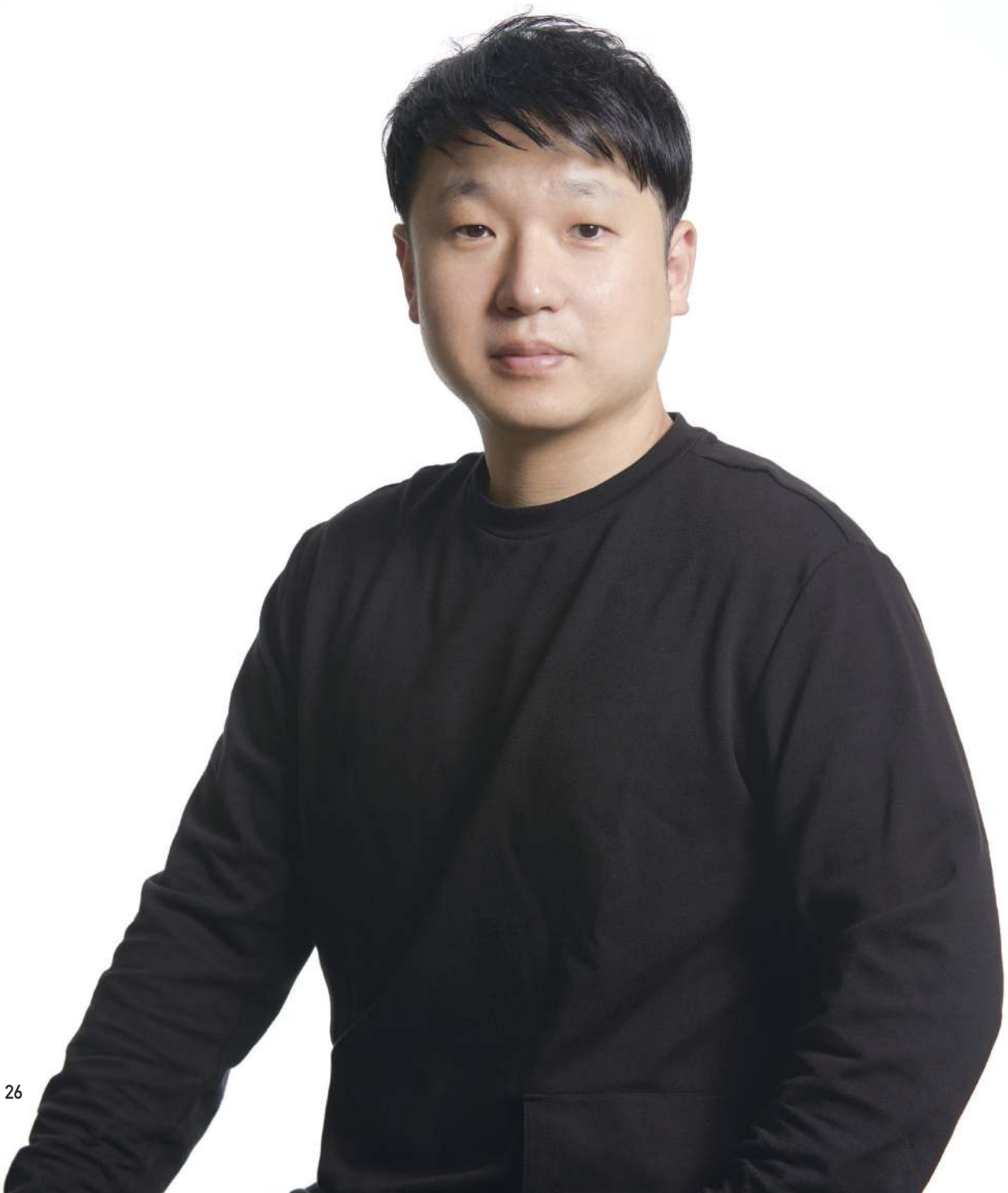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글·사진 | **월간공군 편집실**

제27화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품생활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공군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



전역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양품생활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제품 리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양품생활입니다. 저는 공군병 제609기로 입대해 공군사관학교 헌병대대(현 군사경찰대대)에서 근무했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생활용품들을 오랜 시간 경험해보고 그 과정을 영상과 내레이션으로 만들어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약 32만 명 정도 채널이지만, 실제 올라온 영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리뷰 크리에이터를 하기 전에는 UX/UI 디자이너, 제품/공간 디자이너, 영상 제작자 일을 했습니다. 또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창업하기도 했었구요, 광고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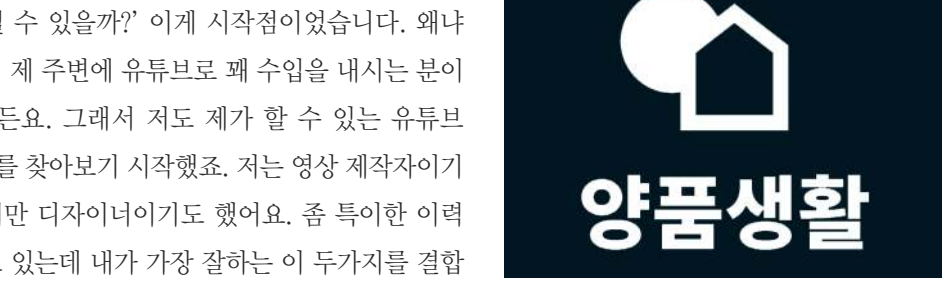
공군과의 인연, 그리고 추억

우선 저희 아버지가 공군 상사로 퇴역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공기나 사이트 생활 등 공군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죠. 그래서 입대할 때도 큰 고민없이 공군을 선택하였습니다. 익숙하니까요. 군 생활은 공군사관학교에서 헌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군 생활을 한 것이 큰 인연이 됩니다. 제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훗날 장인어른이 되실,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놀랍게도 공군사관학교 26기 출신으로 공군 예비역 대령이셨다는 것! 게다가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공군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 훈육관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 아내의 외할아버님이 공군 예비역 소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지어 공군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하셨던 분이죠! 제가 근무했던 충청북도 청주 쌍수리에 있는 공군사관학교가 아내의 외할아버님이 결정하셔서 이전했다는 사실에 또 놀랄 수 밖에 없었죠. 아내를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참 인연이다는 생각이 들면서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예식장도 공군회관에서 했네요. 이쯤되면 정말 공군과 인연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죠? 전 원래 정훈병을 가려고 했습니다. 아쉽게도 당시 정훈병이 되기 위해선 사진 관련 전문자격증이 필요했죠. 그렇게 선택하게 된 특기는 헌병이었습니다. 저는 헌병 중에서도 경비소대에 있었는데요, 주로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거나 기지 외곽 순찰을 했습니다.

하루는 후임과 함께 새벽 순찰을 나갔어요. 산 기슭을 올라가며 순찰하고 있던 와중에, 저 멀리서 엄청나게 거대한 물체가 보였습니다. 뭔가하고 자세히 보니 아주 큰 고라니였어요. 보통 고라니는 사람 소리만 나도 도망가는데 이 친구는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더군요. 느낌이 쎄했죠. 이러다 고라니한테 한 번 밟힐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던 후임에게 "우리 저 고라니가 원래 가던 길을 갈 수 있게 잠시 시간을 주자"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등에서는 식은땀이... 그렇게 우리는 순찰을 돌다가 숲속 외길에서 잠시 먼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간곡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거대했던 고라니도 이내 숲속으로 사라지더군요. 결국 후임과 저는 고라니에게 눈을 깔아내린 덕분에 무사히 순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할 때면 꼭 꺼내는 저만의 에피소드에요. 그땐 정말 무서웠는데, 지금은 정말 재밌는 추억을 하나 갖고 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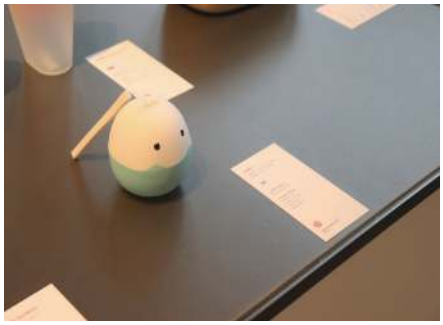
차별화된 제품 리뷰 유튜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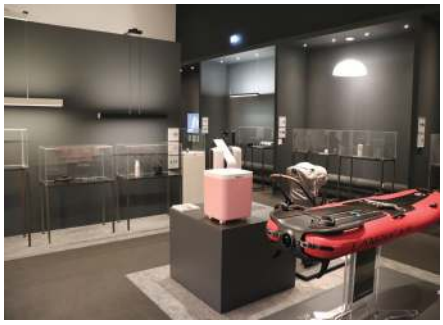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나도 유튜브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시작점이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제 주변에 유튜브로 꽤 수입을 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저는 영상 제작자이기도 하지만 디자이너이기도 했어요. 좀 특이한 이력일 수도 있는데 내가 가장 잘하는 이 두가지를 결합시켜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영상제작자로서, 디자이너로서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하는 작업방식에 좀 지쳐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완전히 내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영상을 서비스 해보자고 생각했답니다. 사실 유튜브에 보면 리뷰 콘텐츠나 채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다른 채널에서는 볼 수 없는 경험을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경험'이었습니다. 제품의 스펙을 단순히 설명해주는게 아니라, 내가 제품과 함께했던 드라마틱한 경험들을 영상으로 재구성해서 이야기 해주는 거죠. 사실 이건 제가 디자이너 일을 하면서 배웠던 '유저 익스피리언스(사용자경험)'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청자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게 될 경험을 상상하면서 대본을 쓰거나, 기획을 하거나, 촬영을 하거나, 편집을 하는 거예요. 저의 제품 경험과 시청자들의 시청 경험의 교집합을 찾아내는 작업인거죠.



〈양품생활〉로고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도 매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20개 정도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 영상의 개수가 적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품생활의 영상 작업 자체가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보통 한 편의 영상을 만들 때 짧게는 한 달 반, 길게는 3달 가까이 걸리는데요. 특히 여러 제품을 동시에 리뷰하는 콘텐츠의 경우엔 시나리오를 쓰는 단계만 2주 정도 걸리고, 편집만 족히 1달이 소요됩니다. 두번째 이유는 저의 본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품생활 외에 유튜브 채널들도 관리하고, 그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 편집도 하고 있구요. 최근에는 제품 사진과 인물 사진을 찍는 스튜디오 오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일만 합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들처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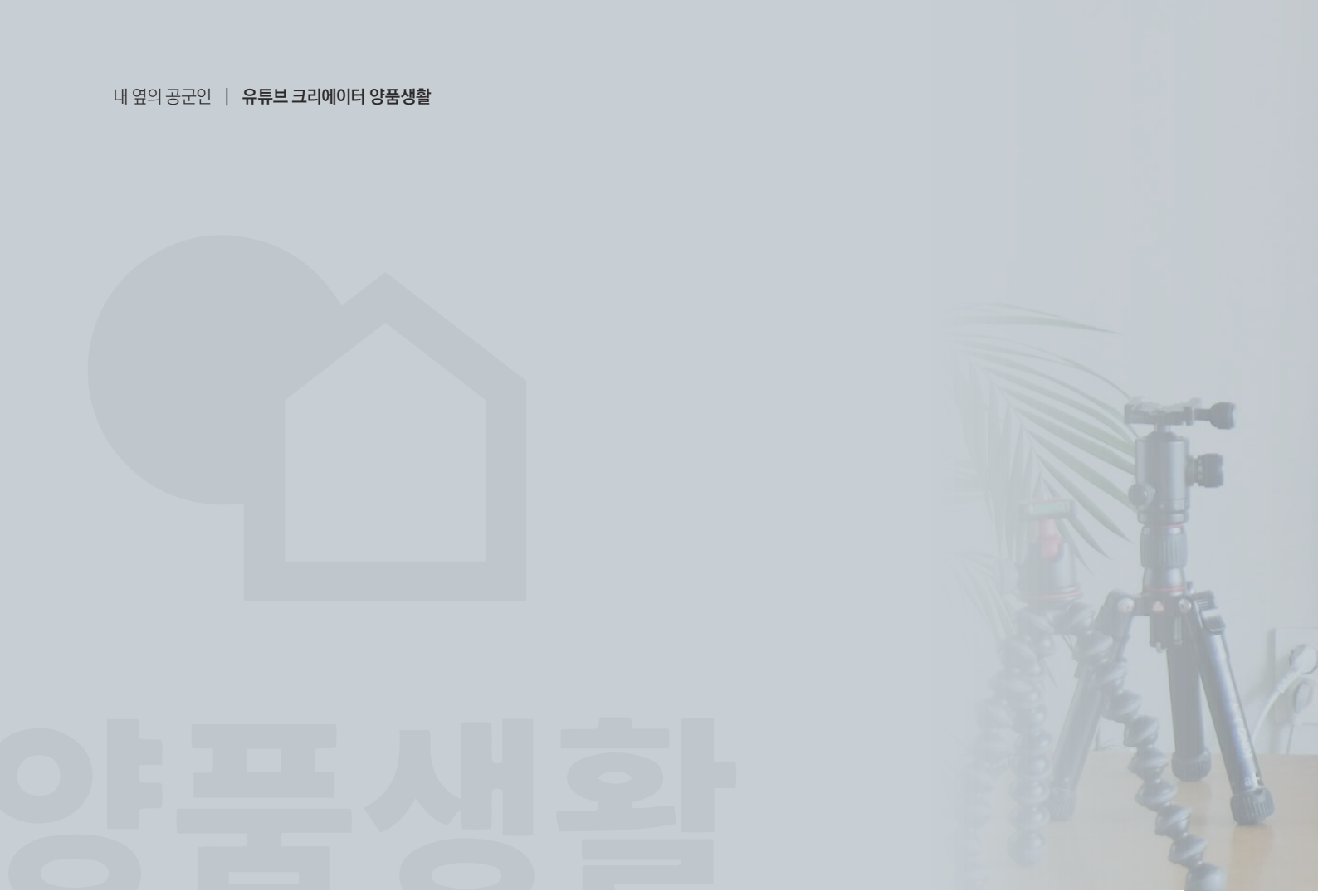


쪼비, 쪼비박스

지난 2019년에 수상한 레드닷 어워드 Best of the Best상

남다른 감각의 디자이너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특별한 상을 받아본 적도 있는데요. 몇 년 전, 그때 당시 다니던 광고회사 팀원들과 함께 '쪼비'라는 아기들 쪽쪽이 살균기와 '쪼비박스'라는 장난감 살균기 제품의 디자인을 했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한 제품들이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던 어워드 '레드닷 어워드'에서 수상했습니다. 특히 그중에 '쪼비박스'라는 제품은 직접 시상대에 올라가 수상을 하는 'Best of Best' 상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상이냐면, 당시 레드닷에서 같은 상을 받았던 제품이 무려 '애플워치' 였어요. 이 상은 직접 시상대에 올라가서 받는 상인데 그 긴박한 순간에도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다 찍었습니다. 혼자서 미니 삼각대 세우고 말이예요.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양품생활 채널에 올라오는 댓글들에 영상편집에 대한 칭찬이 올라옵니다. 사실 특별한 것도 없는데, 아무래도 '유저 익스피리언스(사용자경험)'의 영향 때문인가봐요. 제가 올린 영상들의 실제 편집기술들은 뜯어놓고 보면 모두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기술들을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거죠. 아무리 화려한 기술도 너무 남발해버린다면 큰 감흥을 주지 못해요. 스킬만 가지고는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클래스 101'에서 저의 영상제작 방법에 대한 강의를 공개하였습니다. 구성은 아주 간단해요. 처음 영상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대본을 쓰고, 촬영을 하고, 나래이션을 녹음하고, 편집을 하고, 색보정도 하고, 실제 마지막 동영상 파일로 만드는 방법까지. 제가 영상을 만드는 전 과정의 노하우를 모두 담아보았어요. 사실 거의 십수년간 작업해 왔던 제 노력과 노하우 대방출이었죠. 양품생활 만들듯이 아주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응도 너무 좋았어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반응은 '정말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하하.

실제로 영상 카테고리에서도 제일 높은 만족도 수치를 기록중이고, 강의 양도 가장 많습니다.

힘들게 만들었는데 많이들 좋아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클래스 101을 통해 영상제작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양품생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유튜버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유튜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핵심이예요.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 한가지를 일관성있게 지켜나갈 예정이예요. 사실 리뷰 광고 의뢰를 안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품생활 채널로는 큰 수익은 없지만 말이죠. 저는 공군에 복무하는 동안 정말 많은 시간을 자기계발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너무 바쁜 날에도 관물대에 전공서적을 꽂아두고 한 문장이라도 읽으려고 했죠. 또, 일과 시간이 끝나면 항상 독서실에 앉아 책을 읽었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군생활이 어땠냐고 물으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었다고 대답합니다. 왜냐면 그때의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결과들을 만들어 내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바쁘지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반드시 공부를 합니다. 단 1분이라도. 왜냐면 제가 실제 군 생활을 할때 항상 이런 마음으로 공부했었으니까요. “단 1분 이라도 어제보다 더 배우겠다.” 분명 그 1분들이 쌓여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스스로에게 좋은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꾸준히요! 감사합니다. 필승! AF

글·사진 | 상사 박경호(항공지원작전단 인사운영처)

우 리 부 대 는

Only One! All for One!

항공지원작전단

하늘과 땅, 바다를 잇는 공지해 합동작전 전문 부대
공지해 연합 및 합동작전의 최선봉 부대로서 대한민국 최전선을
지켜온 항공지원작전단을 소개한다.

부대 마크의 의미

- 원 : 하나된 마음을 표현
- 파랑 바탕 : 하늘을 의미하며 공군을 상징함
- 태극문양을 감싸는 날개 :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문양을 중심으로 조국의 영공방위와 국토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
- 태극문양 :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
- 삼각형 : 공군(하늘색), 육군(황색), 해군(흑색)을 의미하며 공지해 3군 합동작전을 나타냄
- 번개 : 3군의 유기적인 통신협조체계를 상징

부 대 연 혁

- 1958. 10. 제31전술통제비행전대 창설
- 1971. 8. 제36전술항공통제전대 창설
- 1973. 2. 전대 예하 제36직접항공지원본부 창설
- 1983. 6. 서부항공지원작전본부 창설
- 1993. 7. 남부항공지원작전본부 창설
- 2015. 12. 전술항공통제단으로 부대 승격·창설
- 2019. 3. 항공지원작전단으로 명칭 변경

단본부 전경

단 창설 기념사진

연합 및 합동작전의 최선봉 부대

항공지원작전단(이하 '항지단')은 1958년 10월 20일에 창설된 제31전술통제비행전대를 모체로 한다. 근접항공지원 등 타군과 함께 하는 합동작전을 주 임무로 한다. 육군과 해병대에 항공지원협조본부와 항공지원작전본부를 두고 있고, 육군 여단급 이상 부대에 전술항공통제반을 배치해 완벽한 작전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연합·합동작전 전문 부대이다. 최근에는 소형 무인기 교육 등을 실시하며 미래 작전에 발맞춰 가고 있다.

전술항공통제반 CAS 임무

JTAC 연합훈련 참가 사진

최전방 창끝 부대 전술항공통제반!

전술항공통제반은 항지단에서 운용하는 소단위 임무 수행 제대이다. CAS 등 합동작전에 대한 최종공격통제권에 대한 자격과 임무 수행능력을 갖춘 합동최종공격통제관과 차량 및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전술항공통제장비운영요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육군과 해병대에 파견돼 평시 교육·훈련 지원을 하고, 전시에는 공지해 합동작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시뮬레이터 교육

합동최종공격통제관 전문 교육 기관

공지합동작전학교는 합동최종공격통제관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이다. 미 합참으로부터 국제 합동최종공격통제관 양성 프로그램과 교육·훈련체계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최신 전술·전사에 대한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최정예 작전요원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합동 화력·공역 교육 과정을 운용하며 합동작전에 대한 전군의 이해도를 높이고 합동성 강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전술항공통제반 CAS 임무

지상군과 공군을 잇는 교두보

항공지원협조본부는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에서 근접항공지원 전력을 조정하고, 공역을 통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구사 대화력전 임무 수행을 지원하고, 지작사령관에 대한 공군 전력 운용에 대한 조언을 하는 등 공군 전력과 지상군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 정립된 지휘체계와 임무 재정립에 발맞춰 예하 전술항공통제반을 지휘하며, 완벽한 항공지원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전술항공통제장비 정비

완벽한 정비지원으로 작전 뒷받침

항공지원정비대는 항공지원협조본부와 전술항공통제반에 지원 중인 전술항공통제장비와 작전 차량에 대한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있다. 임무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통신전자장비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하며 최상의 장비 상태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AF

구성·편집 | **월간공군 편집실** 사진 | **위인태 상사(공군본부 공보과)**

F-5 편대 비행

구성·편집 | **월간공군 편집실** 사진 | **각 부대 제공**

제1전투비행단

항공기 초과저지장비 점검

제1전투비행단은 6월 16일(수) 기지 내 활주로에서 '항공기 초과저지장비 종합 점검'을 실시했다. 항공기 초과저지장비는 항공기 이·착륙시 항공기 문제로 인해 속도처리가 되지 않아 활주로를 이탈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서 항공기 속도를 제어해주는 안전장치이다.

제3훈련비행단

산불 대응 소방훈련

제3훈련비행단은 6월 9일(수) 영외 탄약고에서 종합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기지탄약고 산불 발생시 초동 진화체계 구축 및 효과적인 진화를 위한 훈련이다.

제10전투비행단

화생방 전술평가대회

제10전투비행단 화생방지원대 장병들은 6월 2일(수) 공군본부 주관 '제25회 화생방 전술평가대회'에 참가해 임무수행 능력을 여과없이 선보였다.

제11전투비행단

조리병 요리 경연대회

제11전투비행단은 6월 12일(토), 병사 1식당에서 조리병 요리경연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대회는 비선호 메뉴에 대한 질적 향상, 브런치 신규 메뉴 개발과 조리병 사기증진을 위해 개최되었다.

제17전투비행단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제17전투비행단은 6월 6일(일), 제66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기지 내 하늘빛공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념식을 거행했다.

공군 기상단

기상예보 워크숍

공군 기상단은 6월 3일(목) 기지 강당에서 '21년 하계 악기상 대비 기상예보워크숍을 진행했다. 외부 전문가 특별 강연, 주제 토론 등을 통해 여름철 악기상 예보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가졌다. AF

글 | **이조윤 에세이스트**

한 달, 한 권

우리는 여기에 있다

누구도 이만한 기억은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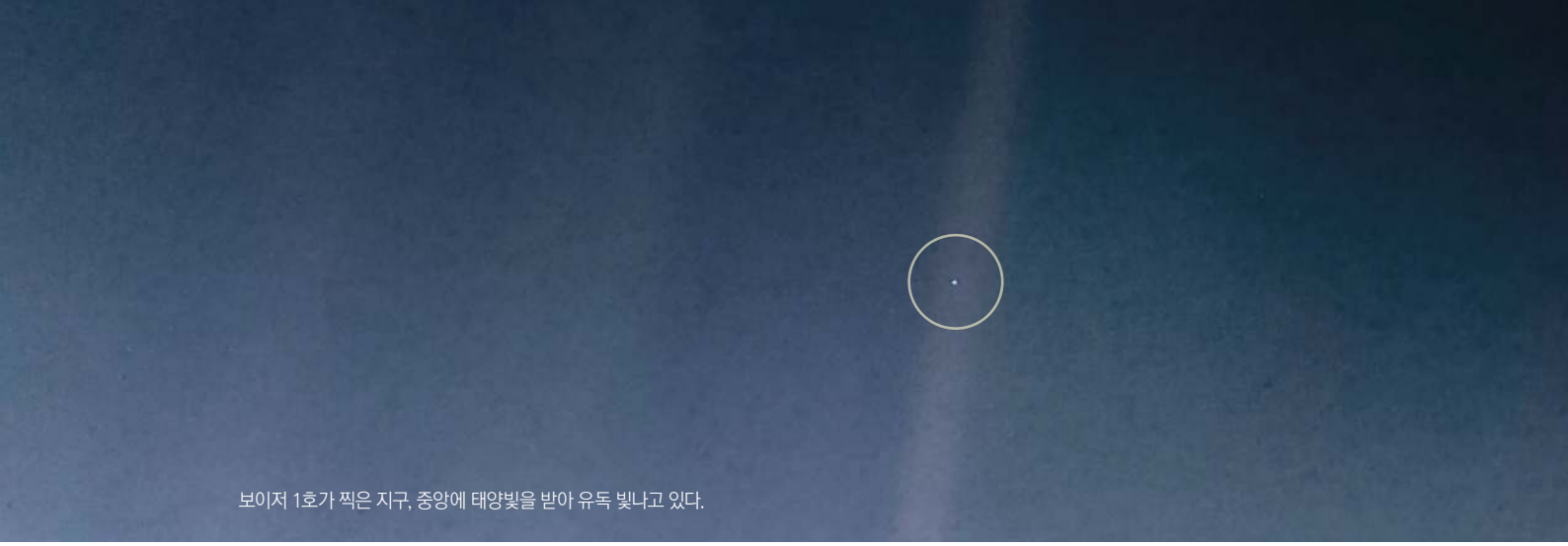
이 기억은 수십 년은 지났지만 흐트러짐 없이 기억 속에 온전히 자리하고 있다. 그때 나는 강원도 소금강이라는 작은 계곡 평상에 누워있었다. 별이 돋을 무렵, 깜박 잠이 들었다. 그리고 두어 시간 지났을까, 스산한 밤기운에 눈을 떴다. 아뿔싸! 사위는 암흑천진데, 하늘은 온통 반짝이는 은빛 세상이고 별들은 손에 잡힐 듯, 코앞에서 나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아마 그 후부터 나는 밤이 되면 하늘을 쳐다보는 버릇이 생긴 듯하다. 비록 그때만한 광경은 더이상 볼 수 없었지만, 성근 별일지언정 별과 눈을 마주하고 있으면, 내가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별이 나를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 별 속에 내 그리운 사람과 사랑하는 것들을 옮겨두고 말을 걸곤 했다. "잘 있지? 나도 잘 있어."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을 『창백한 푸른 점』에서 다시 만났다. 1977년에 발사된 무인우주탐사선 보이저 1호가 목성과 토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을 때, 보이저 프로젝트에 참여한 세이건은 보이저의 카메라를 지구 방향으로 돌려 인류가 살아가는 지구의 모습을 담아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해진 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주탐사선의 카메라 방향을 수정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다 보이저가 계획했던 임무를 마치고 해왕성을 지나 태양계 밖으로 벗어나기 직전, 그의 의도를 공감해준 '리차드 트룰리' NASA국장은 보이저의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릴 것을 지시한다. 그렇게 가장 먼 곳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은 매일 밤 내 머리 위에 떠있는 별들처럼, 먼지만큼 작고 빛나는 별이 되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세이건은 그 반짝이는 별을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는 『코스모스』를 통해 인류에게 잊지 못할 메시지를 남겼다. 그 일부를 옮겨보았다.

"여기가 우리의 보금자리고 바로 우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들어봤으며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고통, 우리가 확신하는 수천 개의 종교와 이념, 경제체제, 모든 사냥꾼과 식



보이저 1호가 찍은 지구, 중앙에 태양빛을 받아 유독 빛나고 있다.

량을 찾는 이들, 모든 영웅과 겁쟁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모든 왕과 농부, 모든 사랑에 빠진 연인,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촉망받는 아이,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스승과 부패한 정치인,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의 지도자,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이 태양 빛 속에 떠다니는 저 작은 먼지 위에서 살다 갔습니다.

지구는 '코스모스'라는 거대한 극장의 아주 작은 무대입니다. 그 모든 장군과 황제들이 아주 잠시 동안 저 점의 작은 부분의 지배자가 되려 한 탓에 흘렀던 수많은 피의 강을 생각해보십시오. 저 점의 한 영역의 주민들이 거의 분간할 수도 없는 다른 영역의 주민들에게 끝없이 저지르는 잔학행위를 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자주 불화를 일으키고 얼마나 간절히 서로를 죽이고 싶어 하며 얼마나 열렬히 증오하는지… 우리의 만용, 우리의 자만심, 우리가 우주 속의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대해, 저 창백하게 빛나는 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창백한 푸른 점』을 읽는데, 꽤 오랜 시간을 소요했다. 그럼에도, 읽는 내내 내 능력으로 인식할 수 없는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뒤적거린 수준밖에 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다.

"태양계와 그 너머 곳곳에 흩어져 있을 우리의 먼 후손들은, 그들의 고향 행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주를 통틀어 다른 생물은 몰라도 인류만은 지구로부터 유래했다는 인식으로 한 가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밤하늘을 우러러 창백한 푸른 점을 찾아내려고 애쓸 것이다. 그것은 비록 보잘 것 없는 나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으나, 그들은 사랑하여 마지않으리라. (중략) 인류의 시작은 얼마나 초라했으며, 제 길을 찾아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강을 건너야 했던가. 그 사연 모두에 그들은 경탄할 것이다."

오늘도 별이 뜰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이건이 카메라를 돌려 지구를 보고자 했던 부분에 마음이 걸렸다. 아마도 그건, 항상 내 시야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살아왔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편 어디선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을 많은 이들에게 미안했기 때문이다. 그 후로 나는 나의 시선을 저편에 두고 살고자 했다. 그러면 틀림없이 행복해질 것 같았다. AF

『창백한 푸른 점』
저자 칼 세이건
출판사 사이언스북스

글쓴이
현재 『월간에세이』 편집위원

글 | **최순용 명상 강사**

명상을 말하다

일상에서 명상하기

우리 일상생활은 일종의 실험실입니다. 일상은 우리에게 시험과 도전의 과제를 제공하지요. 명상이 일상 속의 갈등과 고충을 대처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명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이 투명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 명상은 이따금만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알아차림 명상은 순간순간의 알아차림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마음이 지어내는 온갖 현상의 발생과 성장과 소멸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지요.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어떤 것도 그냥 지나가게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생각과 감정과 활동과 욕망을 비롯한 모든 쇼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 모두를 계속해서 지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명상하는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시간이란 없습니다. 어떤 자투리 순간이라도 다 명상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조급해 할 때 그 조급함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은행에서 자기 차례를 지루하게 기다릴 때 그 지루함에 대해 알아차리며,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욕심에 대해서 알아차리면 됩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명상의 대상입니다."

하루 종일 방심하지 말고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해도, 일어나는 그대로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모든 자투리 순간들을 알아차림하는 데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순간들을 이용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스러운 것인지, 꺼림칙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변하는지를 보아야 하고, 어떤 경험도 배제하거나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상 활동을 해나가다가 지루한 상태에 놓이면, 지루함을 놓고 명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고, 작용하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찾아내보세요. 화가 나면 그 화에 대해서 명상하십시오. 그 화의 메커니즘을 탐색하세요. 거기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깊은 우울에 주저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그 우울에 대해 명상하십시오. 초연한 탐구심으로 그 우울을 연구하세요. 그것에서 무턱대고 달아나지 마십시오. 미로를 탐사하고 그 길을 약도로 나타내세요. 이렇게 해두면 다음 번에 다시 우울이 찾아올 때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순간 자신의 마음을 열어둡니다. 초연하고 탐구적인 태도로 끊임없이 삶을 조사하고 나름의 체험을 점검하고 자기 존재를 살펴봅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모든 근원에서 오는 모든 형태의 진실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밤하늘에 뜬 달, 새 울음소리, 나무를 스치는 바람 소리처럼 작고 평범한 것들도 자극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대상이 무엇인가는 그 인식에 어떤 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열린 준비상태입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촉감이 단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읽어가는 이 구절의 소리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요.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알아차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은 열린 마음입니다."

알아차림 상태는 마음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마음이 선입견이라는 짐을 지고 있거나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상태, 어떤 일이 다가오든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상태이지요. 실제로 알아차림 상태에 있게 되면, 우리의 신경계는 통찰력을 길러주는 신선함과 원기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효과적으로, 최소한의 소란만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벌벌 떨며 거기에 있지도, 조용한 구석으로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쉽게 처리합니다. 전혀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필요로 하는 다음 문제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직관은 아주 실용적이 되어가지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는 습관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습관에 따라 살아가지요. 말하자면, 우리는 습관의 창조자이자 습관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은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이후 우리의 행동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요.

명상의 목표는 연이은 습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경험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자각하는 것입니다. 행하고 경험하는 것의 대부분이 거의 혹은 전혀 우리 주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들은 완전히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우리의 습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곳에 있지 못한 채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 조종장치만 그냥 작동시켜 놓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백일몽과 선입견의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가만히 알아차리고 지켜보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알아차림 명상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것만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AF

글쓴이

검사 출신 변호사. 약 30년 전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업무와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신세계 아카데미, 삼성 레포츠 문화센터, 인터넷 방송 등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글 |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

영화로운 나날

뜨거운 질주와 따뜻한 우정의 공존

거대한 규모로 박스오피스의 한계를 부수는 영화를 블록버스터라고 하죠?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여름 블록버스터 중에서도 긴 시리즈를 자랑하는 프랜차이즈 영화입니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시작한 1편과 달리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 또한 커졌습니다. 20년간 전 세계 흥행 수익이 약 59억 달러, 한화 6조 8,600억 원에 이를 정도죠. 그러나 『분노의 질주』의 시작은 소박했습니다. LA 변두리 동네에서 좀 놀 줄 아는 도미닉(빈 디젤)과 친구들. 이들은 스트리트 레이싱으로 스릴을 즐기고, 컨테이너 트럭 털이로 용돈을 법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3,800만 달러의 제작비로 5배가 넘는 2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니 이 영화의 속편이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속편 역시 성공하면서 토레토 패밀리는 동네 폭주족에서 글로벌한 용병 팀이 되어 세상을 구합니다. 일본, 멕시코, 브라질, 쿠바, 런던 등 전 세계를 무대로 차뿐만 아니라 운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탱크, 잠수함, 비행기 무엇이든 몰고 부수고 질주합니다. 급기야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에 이르러서는 우주까지 가죠.

하지만 이 거대한 질주의 엔진은 최첨단 기술도, 어마무시한 액수의 돈도 아닌 바로 가족입니다. 도미닉 토레토의 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사는 가족과 형제. 부모를 잃은 그에게 가족은 동생만이 아닙니다. 그와 오랫동안 함께하는 친구들 역시 형제죠. 그래서 가족은 그를 움직이게 하고 때로는 적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스케일 큰 집안싸움은 토레토 집안의 소통 불능과 적체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족끼리 평소에 대화하고 그때그때 화해했으면 우주까지 가야만 하는 집안싸움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사실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주인공은 언제나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는 도미닉과 친구들에게 여자친구라고 불리는 애정의 대상이자 팔다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속도를 선사하는 새로운 육체이기도 하죠. 그래

서 스트리트 레이싱은 이들에게 자신의 육체적 능력을 뽐내는 시험대이자 함께한 이들과 단 몇 초 만에 유대감을 쌓는 강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인격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도미닉이 브라이언(폴 워커)과 레이싱을 펼치고 나서 기술이 조금 모자라지만 비열하게 운전하지 않는 그에게 호감을 느낀 것은 당연한 수순일 터. 이후 이들은 이산화질소를 주입한 레이싱카의 속도처럼 빠르게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분노의 질주』 1편과 2편에서 스트리트 레이싱은 온갖 자동차들을 보여주는 쇼윈도가 되기도 하는데요, 고출력 엔진과 '노스'라 불리는 이산화질소를 주입할 수 있게 개조된 스포츠카를 비롯해 아메리칸 클래식 머슬카의 향연은 차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이야기가 상관없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특히 1편 엔딩 신에서의 드래그 레이스는 손꼽히는 레이스 액션신이죠. 도미닉과 브라이언이 모든 걸 걸고 마지막 레이스를 철길에서 펼칩니다. 단거리에서 가속만 겨루는 드래그 레이스에서 도미닉은 아끼는 오래된 크라이슬러 닷지 차저를 몰고, 브라이언은 토요타 수프라를 몹니다. 기차를 향해 돌진하는 어찌나 이들의 레이스가 아찔했던지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없었던 일본차 수프라는 갑자기 큰 인기를 얻고 중고차 가격까지 상승했을 정도였습니다.

관객들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20년간 지속되어온 시리즈인 만큼 갖가지 부침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속편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영화가 아니라 1편의 성공 뒤 제작진은 빈 디젤에게 당연히 속편의 시나리오를 건넸지만 거절당하고 맙니다. 빈 디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이름만 같은 다른 영화로 느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브라이언과 그의 옛 친구의 이야기로 급하게 수정되는 바람에 2편 촬영은 연기되기도 했죠. 2편 역시 흥행에 성공한 뒤 절치부심한 제작진은 다시 빈 디젤에게 시나리오를 건넸지만 3편은 아예 폴 워커, 빈 디젤 등 오리지널 캐스트가 다 빠진 상태에서 완성됐고, 이들은 4편부터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브라이언 캐릭터로 빈 디젤의 도미닉과 함께 시리즈를 이끌던 폴 워커의 부재가 가장 가슴 아프죠.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폴 워커를 기리기 위해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은 폴 워커에게 오롯이 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작진은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떠난 그를 위해 촬영 분량을 삭제하지 않고, 그의 두 동생들을 대역으로 출연시키고 CG 작업을 거쳐 폴 워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넬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도미닉은 브라이언에게 말합니다. "넌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영원한 내 형제"라고. 뜨거운 질주와 따뜻한 우정이 공존하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다시 봐도 참 여름을 닮았네요. AF

영화 『**분노의 질주**』

글쓴이

영화에 대해 쓰고 말합니다. 오늘도 영화 속의 멋진 여성 캐릭터와 그보다 더 멋진 주위의 여성들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공군인의 편지

글 | 일병 원종현(작사예하 근무지원단 수송대대 수송중대)

나를 꽃피우고 굽어가는 소나무에게

어렸을 땐, 한없이 드높고 굵은 그 나무가 제가 자라며 얇아지고 굽어가는 기둥의 모습을 보며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 하는 건방진 격세지감을 느끼고, 나의 슈퍼맨도 나랑 같은 사람이였구나 하는 서글픈 마음도 듭니다. 연병장의 입구에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어내며 멀어지고, 눈물 훔치는 어머니 옆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흔들어 주는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을 보며 참았던 눈물이 못내 흐르고 당당한 척 등을 돌리고 입영장병들과 하나가 되어 서로의 충혈된 눈을 가려주었습니다.

훈련단 첫날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교관과 조교들의 무서운 모습에 위축되고 하루 만에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집이 아니라는 사실에 통곡하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조차 없이 바쁜 훈련단 일과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고 보니 훈련이 끝나있었고 효전화로 부모님의 "아들" 하는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복받치는 감정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도 기억 안나는 몇 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같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훈련단에서 특기학교로 와 조금은 여유있는 특기교육을 받고 작근단에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

아직 절반도 안 된 군생활이지만 자기계발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좋고 무엇보다 밥이 맛있습니다.

밖에서 먹었던 어떤 급식보다 이곳 병사식당이 단연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 시국으로 면회를 못해서 아들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군복무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생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겠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에게 주도를 배우며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에 친구같은 아들이 되고 싶다고.

저는 저를 지켜주었던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더 이상 가려주지 못할 정도로 자라 이제는 같은 햇살, 비, 눈, 바람을 함께 견디고 자라나는 소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모자란 점이 더 많지만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전역 후에 조금은 더 친근한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족, 애인, 친구, 동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래 양식에 맞춰 보내주세요.

편지 수신인에게 월간 「공군」과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바탕 / 10pt / 줄간격 180% / 공백 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 접수방법 : E-mail 전송 (인트라넷 : cjhminam1210@af.mil, 인터넷 : afzine@korea.kr)

※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편지]) 명시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책읽는 공군

글 | 상병 김정근(작전사령부 감찰안전실 감찰안전과)

필승! 체단실 상번 신고합니다

– 헬린이 상담소

자대에 전입한 이후로 16:30 체력단련 시간을 종교의식처럼 준수해 오고 있다. 일과를 마치고 체력단련실에서 땀 흘리며 쇳덩이와 씨름하는 즐거움은, 아… 걸그룹 위문 공연 저리 가라 할 정도다. 강인한 체력에 강인한 정신이 깃든다고, 헬스야말로 군인에게 최고의 덕목이 아닐까?!

필자의 꾐에 솔깃해 체단실을 기웃거릴 여러분께 책 한 권 추천한다. 바로 심현도의 『헬린이 상담소』. 헬린이는 헬스와 어린이의 합성어로, 헬스에 갓 입문한 이를 일컫는 유행어다. 요즘 헬린이들은 헬스 관련 정보를 책보다 인터넷, 특히 유튜브를 통해 쉽게 접할 텐데, 이는 정보의 홍수에 휩쓸려 중심을 잃기 딱 좋은 방법이다. 감히 단언컨대, 쇠질은 연애가 아니므로 책으로 배워도 충분하다. 특히, 기본에 끔찍이 충실하고, 따끔한 팩트폭행도 아끼지 않는 『헬린이 상담소』와 같은 양질의 입문서라면 그렇다.

저자 심현도는 첫 장에서 딱 잘라 말한다. 당신이 헬스 초보자라면, 몸 만들 생각 따위는 접어라! 몸 만들기에 앞서, 기초 근력과 기초 근육을 단련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많은 헬린이들이 "개별성의 원칙"을 간과한 나머지, 기본에 충실해야 할 단계에 무작정 유명 보디빌더의 훈련법을 따라 하기 바쁘다고 한다. 개별성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 개인마다, 그리고 개인의 단계에 따라, 적합한 운동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단계는 무얼 의미할까? 놀라지 마시라. 그건 당신의 체형이나 인바디 수치, 심지어 운동 경력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보다 당신의 체력 발달 수준과 운동 수행 능력을 종합한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신의 헬스 트레이닝 단계를 측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책을 펼쳐 보기를!

저자는 헬린이들에게 기본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면서 또 하나의 따끔한 충고를 내민다.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의미에 주목하라! 일례로, 세간에 유행하는 트레이닝 방법론 중에 "8~12회 5세트"라고 있다. 그런데 많은 초보자들이 8~12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적당한 무게로 대충 숫자만 채우면 근육이 발달할 거라고 착각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8~12회는 본인이 들 수 있는 최대 무게(헬스 용어로 1RM이라고 한다)의 7-80%라는 사실! 혹시 알고 있었는가? 몰랐다면, 이참에 심현도의 헬린이 상담소 문을 두드려 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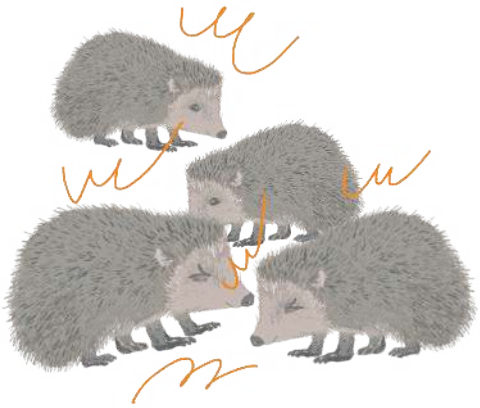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군 생활. 그 속에서 매일 같이 주어지는 16:30 체력단련 시간. 어영부영 보내기 너무 아깝지 않은가? 당장이라도 책을 집어 들어 동기부여 제대로 받고 체단실로 뛰쳐나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이 아름답다. AF

「헬린이 상담소」
심현도 지음
더나눔 펴냄

생각하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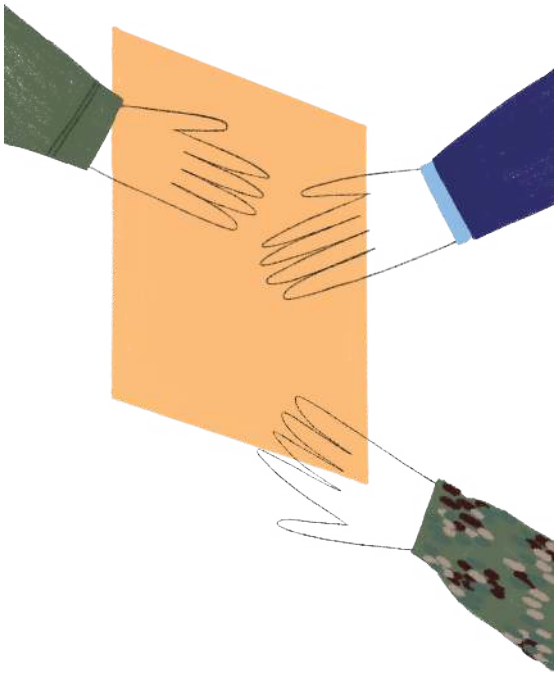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그림 | 강은정 작가

관계의 중재선



고슴도치 한 무리가 추운 겨울에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모입니다. 하지만, 고슴도치는 몸에 가시가 많기 때문에 이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합니다. 서로의 가시를 피하기 위해 떨어져 보지만 추위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는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가, 동료가 주는 고통에 힘들어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고슴도치는 서로를 위해 적정선의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가까워져서도,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되는 상황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고슴도치 딜레마는 나타납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하지만, 막상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사람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혼자 조용히 머물고 싶은 욕구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주변인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하면서도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관계를 맺을 때 각자의 '선(線)'이 있습니다. 선은 다른 말로 '예의'라고 합니다. 친하게 지내기 위해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상대방에게는 선을 넘은 행동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선'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일정한 '선'을 넘지 않는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이 어렵고 힘들 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열린 구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자성어에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하기도 어렵고 멀리하기도 어려운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가장 좋은 인간관계란 서로의 '선'을 지키는 관계입니다. 사람 사이 선(線)을 지키는 게 올바른 선(善)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대에서 생활하다 보면, 하루 종일 전우와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지낸 전우라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욱 가깝게 지내는 전우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서로의 거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공군인 여러분! 오늘 하루 서로에게 적당한 관계의 중재 '선'을 찾아봅시다. AF

수용의 미학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수용’의 의미

학창시절 아이들끼리 서로 놀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는 이름이다. 나 또한 초등학교에서 이름으로 놀림을 많이 받았다. ‘포로 수용소’, ‘회수용’, ‘수용장’, ‘용가리’, ‘수드래곤’ 등 다양한 별명으로 친구들은 나를 불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수용’이라는 단어가 참 많아서, 수용이라는 단어가 보일 때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나를 쳐다보며 킥킥 웃었고, 나는 그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고 무안해졌다.

부모님께 지금은 죄송하지만, 어린 마음에 내 이름을 수용으로 지으신 것에 대해 많이 원망했다. TV에서 탤런트 김수용이 나오면, 괜스레 TV채널을 돌릴 정도였다. 마음 한편에서는 ‘저 사람도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겠지!’ 생각하면서 말이다. 어머니는 친구들이 내 이름을 갖고 놀릴 때마다 이름으로 가르침을 주셨다. “수용아, 네 이름이 수용인데, 왜 수용하지 못하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네 이름을 당당하게 여기면 아무렇지 않단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까지 내 이름을 갖고 놀리신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청년이 되어 세상을 조금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오히려 내 이름을 수용으로 지어주신 어머니께 감사하고 있다.

20대 초 사회에서 엘리트 집단으로 알아주는 대학에 다녔다. 똑똑한 친구들이 모여 있으면, 그 친구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깊이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실제로, 참신한 주장, 기발한 생각들이 많았다. 내가 생각할 수 없던 부분들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감탄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기분이 들었다. 전문 지식은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마음의 깊이는 그에 비해 깊어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 이유를 대학교를 졸업할 때 즈음 깨달았다. 마음의 깊이는 지식의 양에서 오는 것이 아닌, 삶의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대학교에서 자신의 의견을 조리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다시 말해,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부족했던 것이다.

앞으로 현대 사회는 MZ세대가 이끈다고 한다. MZ세대는 개성 있는 삶을 지향하고 자기만의 의견과 주장을 펼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뚜렷한 색깔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못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른 사람의 색깔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 그림에서 하나의 색깔만 돋보인다고 해서 그림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는다. 식사에서 하나의 반찬만 맛있다고 해서 잘 먹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러 색, 반찬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림에, 그리고 식사에 만족한다.

「기준의 기준」을 이어받아 「수용의 미학」을 시작한다. 바쁜 업무 중에도, 글을 쓰면서도 항상 귀와 마음의 문은 열어둔다. 내 이름대로 살기 위해. 타인을 수용하고, 수용을 통해 상대방도 나도 더 깊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월간 『공군』을 읽는 독자들도 잠깐 멈춰 여유를 갖자. 날카로운 시선이 아닌, 삐뚤어진 시선이 아닌 넓고 깊은 시선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자. AF

2021 공군 창의·혁신 아이디어 공모

해커톤

참가 대상

공군 장병 및 군무원,
대학(원)생 (사관생도 포함),
스타트업 기업, 연구기관

공모 주제

스마트 국방혁신 구현을 위한
공군 임무분야 디지털 전환 방안

* 세부 공모분야와 출품작은 홈페이지 참고

행사 일정

접수기간
2021년 4월 12일 (월) ~
2021년 7월 10일 (토) 정오까지

멘토링 2021년 8월 2주 중 1일

본선대회 2021년 8월 4주 중 2일

* 코로나 19 관련 행사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접수 방법

공군 해커톤 홈페이지 참조

일반인 www.공군해커톤.kr

장 병 공본 인트라넷 해커톤 홈페이지

수상 내역

10개 팀 시상 총 **상금 1,390만원**

구분	개수(팀)	상금	시상
대상	1	500만원	공군 참모총장상
최우수상	1	250만원	공군 참모총장상
우수상	4	120만원	공동주관 기관장상
장려상	4	40만원	공군 정보화기획참모부장상

주최 주관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 IBK기업은행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KoEF 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후원 창업진흥원 ·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KETI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SWKOREA · KSCI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전자신문

5 1 7

ISSN 2383-5524
07>
9 772383 552001

발 간 등 록 번 호
38-1600006-000001-06